

# 喬棟鄉校의 건축적 특성과 봉안형식에 관한 연구

- 초기형 향교의 특성규명을 위한 사례연구 -

김은중

(건양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 1. 서론

### 1-1 문제의 제기와 연구배경

교동향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한국에서의 최초에 건립된 향교로 알려진 의미있는 유교건축물이다. 서원건축으로 말하자면 소수서원과 같은 위치라 볼 수 있는 향교로서 초기향교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해볼 수 있는 실증적인 사료라 볼 수 있겠다. 서원건축같은 경우에는 소수서원이 초창건축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서원건축의 전체 배치유형에서 유일하게 초기형태로 분류될 만큼 그 사례가 독특한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宿水寺라고 하는 사찰의 대지상에 조영되어 기존의 사찰의 배치가 어느 정도 서원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초기형 배치의 특성에 많은 요인들이 엮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교건축에서 아직까지 그 배치나 구조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 연구가 아직까지 미비한바 초기형 향교에 대한 규명이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겠다. 현재 향교건축에 대한 배치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주로 統史論적으로 접근이 되어 그 유형과 구조방식에 대해서 개론적인 체계화는 되어 있는 반면 시대에 따른 계통적인 접근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에 필자가 교동향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기형 향교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서원건축에서의 사례를 통해 그 배치나 구조상에 盛期の 향교건축과의 예외적인 차이를 발견코자 하였으나 서원건축에서와 같은 예외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향교는 성기의 향교건축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배치나 평면규범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기형 향교가 갖는 미진화성을 규명하고 향후 계통적인 접근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1-2 연구의 틀과 방법

금번 논문에서는 교동향교에 대한 건축공간적인 접근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향례내용이나 절차등 봉안형식에 대하여는 盛期の 향교건축과 큰 차이는 없으나 사료로서의 가치를 보아 그 내용들을 조사 정리하였다.

우선 교동향교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역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규명하였으며 건축적인 접근에서 배치와 평면 그리고 구조와 외부공간등의 부문에 대해 개연적으로 소개한 후 초기향교로서의 특성을 성기의 일반적인 향교규범과 비교론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봉안형식에 대하여는 대성전과 동서무에 배향된 인물들의 상황과 春秋仲月에 이루어지는 釋尊禮의 절차, 그리고 진설형식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2. 교동향교의 건축사적 배경과 의의

교동향교는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148번지에 소재하며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5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려 인종 5년(1127)에 창립하여 한국에서의 최초의 향교로 기록되고 있다. 충렬왕 12년(1286)에 당시 고려 유학의 提擧로 있었던 安裕는 왕을 따라서 元에 갔을 때 공자와 주자의 상을 최초로 그려왔다. 안유는 또한 김문연등을 中原에 보내어 선현과 七十子의 像을 그리고, 또 祭器, 藥器, 六經과 諸子, 史를 구해 사오게 하였다. 김문연등이 서해로 귀환하면서 교동에 寄着하여 교동향교에 임시 봉안하였으나 후에 松京으로 이안하였음을 확신함에 본도의 향교는 孔子廟로서 首位되는 향교라고 전해움이 무리가 아니다.

영조 17년(1741)에 府使 趙虎臣이 華蓋山 北麓에 있었던 향교를 화개산 남쪽 현위치로 이 건하였으니, 舊址는 현 古龜里에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 근방 일대를 '舊鄉校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건 후 장구한 세월이 흐름으로서 향교의 건물이 퇴락하게 되자 고종 27년(1890 : 光緒16년)에 동·서제실을 증건하였고, 1931년에 대성



그림 2. 교동향교 전경

전을 증수하였으며 6·25동란으로 향교의 건물이 더욱 퇴락하자 1960년에 향교건물을 증수하였다. 그 후 동,서제의 개축과 내,외삼문의 개건 그리고 단청등의 보수가 행하여 왔다(1981년)

## 3. 배치 및 건축구조계획

### 3-1. 배치계획

교동향교는 그 향교의 그 구성체계에 있어서 盛期의 향교건축 체제를 대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대성전을 비롯한 동무와 서무, 제기고등을 중심으로 한 제향공간, 그리고 명륜당을 비롯한 동재와 서재를 중심으로 강학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대지가 경사지인 점을 감안하여 전학후묘의 정형적인 배치수법을 사용하여 제향공간의 위계성을 후면의 高地에 두는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선 향교로의 진입로에 외삼문 전면 30m 부근에 홍살문을 설치하여 향교로의 진입을 예시해주고 있으며 이 홍살문을 중심으로 진입로가 약간 굴절되어 향교의 외삼문에 이르고 있다. 외삼문은 전면부에 몇단의 계단을 두고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강학공간은 강당을 중심으로 동·서재가 병치된 특이한 형태의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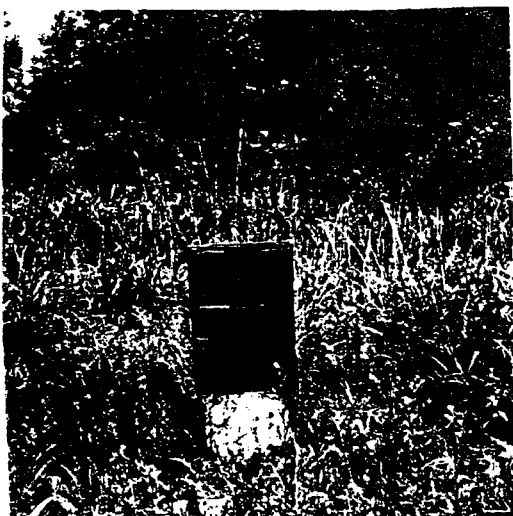


그림 1. 교동향교 舊址

을 이루고 있다. 명륜당과 동·서재는 후벽면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만 동·서재가 명륜당의 측면에 위치하면서 그 연장선이 자연스럽게 강학공간의 중정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나 중정의 전후폭이 외삼문 기단과 명륜당 기단을 기점으로 약 2.85m정도로서 상당히 협박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는 그간의 향교나 서원의 배치에서 보기드른 형태로서 이는 초창기 향교 건축에서 강학공간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결여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명륜당 후면에 제향공간으로의 전이공간에는 약 15단의 계단을 통해 약 2.5m의 고저차를 두고 제향공간을 위한 내삼문에 이르게 되는데 제향공간의 일곽을 두른 담장 우측에 제기고가 설치되어 제향공간을 위한 지원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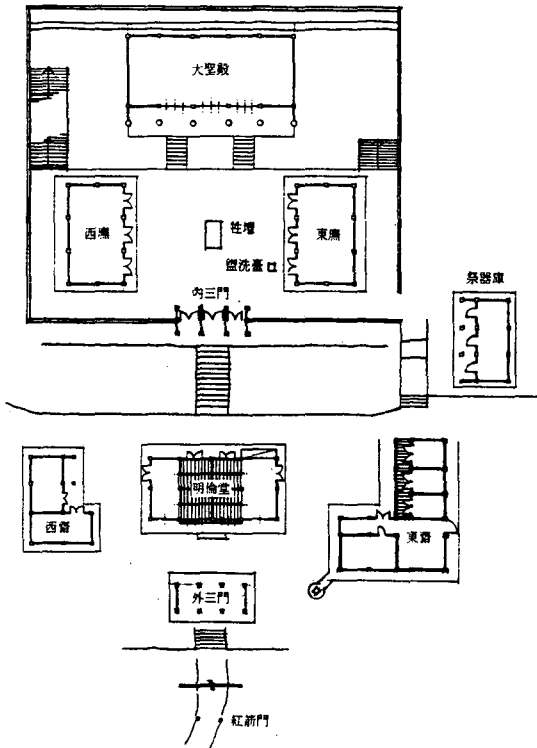


그림 3. 교동향교 배치 및 평면도

내삼문 내부에는 일반적인 향교의 제향공간에서 볼 수 있는 品子型 배치로서 대성전이 한 단 높은 고지에 설치되어 있고 전면 저지에 동·서무가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성전 대성전 동·서쪽 영역과 대성전 영역을 이루는 기단 부위의 진입이 중앙의 계단의 설치와 더불어 양 측면에 램프(lamp)를 이용하여 다양한 진입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홍살문에서 외삼문에 이르는 진입공간, 내삼문과 명륜당 사이의 강학공간, 명륜당과 내삼문 사이의 과정적 공간, 그리고 내삼문에서 대성전에 이르는 제향공간이 약 4개의 계단의 지면 고저차를 통해 전학후묘의 전형적 유교건축 배치기법을 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명륜당과 동·서재가 이루는 강학공간의 배치기법이 성기의 향교건축배치에 비해 미진화된 배치수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다.

### 3-2. 구조 및 외부공간계획

명륜당은 일반적으로 전면에 짝수의 간수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목조건축에서 특이하게도 전면 4칸 측면 2칸의 간수를 채택하였다. 중앙의 2칸을 대청으로하고 양측면을 대청으로 전면 각 1칸의 온돌방을 배치하였다. 중앙의 대청은 전면을 떠살문의 들어열개로 후면은 관장문 미단을 두었다. 우측의 온돌방 주변에는 함실을 두어 상부에는 수납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좌우측 온돌방의 전면창호는 상부에 창호를 두어 진입은 대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양 측면에는 방화벽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5량구조로서 민도리 형식의 소박한 가구이며 외무의 보렐목밀에 헛침차형태의 구조가 밀을 받치고 있다. 막돌초석에 방주, 팔작지붕의 흘처마로서 단청을 제외하고는 일반 민가의 건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동·서재는 강당전면에 대청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평면은 모두 'ㄱ'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평면구조는 다소 상이하다. 동재는 정면 3.5

간, 측면 5간의 7자 형태로서 장방향의 3칸과 단방향의 2칸을 온돌방으로 구성하고 그 중앙에 1.5칸×2칸 규모의 부엌공간을 배치시켰다. 중정을 향한 장방향부분의 온돌 전면엔 툇마루를 두었으며 단방향부분에는 온돌방 전면에 제주도 민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못등과 같이 부엌과 온돌방에 걸쳐 전실형태의 퇴간이 내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돌방들은 전면부 모두 띠살창호이며 후면은 모두 상부에 살창을 두었다. 내부는 5량구조로서 민도리형식의 가구 구조로 팔작지붕에 홀처마이다.

서재는 전면 2칸, 측면 3칸의 7자 형태로서 동재보다는 다소 규모가 작다. 측면의 2칸은 간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온돌방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의 2칸은 흙바닥의 광을 이루고 있다, 온돌방 전면은 띠살창호, 배면은 상부에 빗살창호를 두었으며 광에는 판장문 외에는 채광창을 두지 않았다. 가구는 5량, 팔작지붕에 홀처마, 그리고 민도리 양식의 소박한 형태이다. 동서재 모두 벽체를 방화장으로 하여 화재에 대해 엄격한 보호구조를 택하였으며 盛期의 향교에서 보이는 평면구조와는 현저한 차이로 거의 일반 살림집의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다. 제기고는 전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으로서 상당히 퇴락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전면부에만 판장문 미단으로 개폐를 두었으며 좌측 판장문 상단에 살창이 환기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맞배지붕의 측면에는 풍판을 두었으며 좌우측 및 배면 벽체는 두터운 방화장으로 구축하였다. 가구는 3량구조이며 홀처마에 납기둥, 민도리형식으로 소박한 형태이다.

대성전은 약 1.2m 높이의 막돌허튼층쌓기의 기단상에 축조되었는데 전면 5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으로 양측에는 풍판을 두었다. 퇴간부만이 초석은 팔각추형의 장구형초석이며 원형기둥으로 축조되었으며 나머지는 방형초석에 방형기둥으로 하였다. 공포는 이 향교에서 유일하게 초익공형식을 취하였으나 그것도 후면부에는 민도리형식으로 보렷목만 내놓은 상태

이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전체건물에 단청을 하였다. 대성전 중앙 전면3칸에는 띠살창호로서 들어열개문을 달았다. 가구는 1고주 7량구조로서 상부 중도리 밑에는 판대공으로 간단히 받치는 구조를 취하였다. 이 대성전에도 측면 및 후면을 모두 방화장으로 둘러 전체건물에 걸쳐 방화장을 구축한 특이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동·서무는 동·서재와는 달리 배치상의 대칭과 더불어 평면도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3칸 모두 흙바닥으로서 전면에만 창호를 두었는데 양측면에는 띠살문을 중앙간에는 문이 없이 상부에 띠살창만을 두었다.

맞배지붕에 풍판을 달았으며 내부는 5량구조에 민도리형식의 백골집이다. 동서무 모두 측면에 및 후면에는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방화장을 하였다.

홍살문은 원주형 초석위에 두 개의 원기둥을 세우고 상부에 홍살을 얹었으며 그 중앙 상부에는 태극문양의 장식기를 놓았다.

구분	대성전	동무	서무	명부당	동재	서재	제기고
기단	재료	석축	석축	석축	석축	석축	석축
	단형식	단층	단층	단층	단층	단층	단층
형태	막돌	막돌	막돌	막돌	막돌	막돌	막돌
	바른층	바른층	바른층	바른층	바른층	바른층	허튼층
초석	가공	다듬돌	막돌	막돌	다듬돌	막돌	막돌
	형태	방사형주 원형기둥			방형		
기둥	단면	원주, 방주	방주	방주	방주	방주	방주
	형식	민흘림	민흘림	민흘림	민흘림	민흘림	민흘림
바닥	전바닥	흙바닥	흙바닥	마루, 온돌	흙,마루, 온돌	흙,온돌	흙바닥
천장	연등	연등	연등	우름, 연등	우름, 연등	우름, 연등	연등
공포	초익공,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지붕	맞배	맞배	맞배	팔작	팔작	팔작	맞배
창호	띠살, 빗살	띠살	띠살	띠살,골 판,판장	띠살,판 장,살창	띠살,판 장,빗살	판장
가구	1고주 7량	무고주 5량	무고주 5량	1고주 5량	1고주 5량	1고주 5량	무고주 오량
간수	5×15	3×2	3×2	4×2	3.5×5	2×3	3×15

표1. 교동향교 건물별 구조비교표

외부공간은 강학공간은 외삼문과 명륜당간의 거리가 너무 협착하여 거의 증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치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수식을 가하지 못하였다. 명륜당 후면과 내삼문 사이의 고정적 공간상에 내삼문에 이르는 계단 양측에 다양한 식생을 통해 조경을 이루고 있으며 계단 좌측에 한 기의 괴석이 있는데 그 둘에 음각으로 몇자가 새겨져 있다.

대성전 전면의 제향공간 상에는 두 개의 석물이 있는데 중앙에 2.05×1.19m의 방형판석은 牲壇<sup>1)</sup>이며 동무 전면에 놓여있는 석물은 0.27×0.37m로 소 盥洗臺<sup>2)</sup>로 보인다.

명륜당 후면의 화단상에는 진흙을 쌓고 그 위에 향아리를 역으로 세워놓은 듯한 굴뚝이 세워져 있으며 동재의 전면부에는 외삼문과의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굴뚝이 역시 진흙으로 된 하부에 목재로 상부를 납기둥 모양으로 세워 특이한 굴뚝의 의장을 보여주고 있다.

#### 4. 공간구성 특성 분석

교동향교는 국내 초창의 향교건축으로서 주로 배치 및 건축구조상에 盛期の 향교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배치상 가장 특이성을 보여주는 점은 명륜당과 동서재가 이루는 강학공간의 형태로서 경상도나 충청도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명륜당 전면에 강학공간이 형성되는 형태<sup>3)</sup>나

전라도나 경기도 지역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명륜당 후면에 강학공간이 형성되는 형태<sup>4)</sup>를 주로 채택하는데 본 향교에서는 이러한 배치수법과는 전혀 별도로 동·서재가 명륜당 좌우에 배치함으로서 강학공간이 명륜당을 중심으로 일렬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명륜당과 외삼문과의 공간이 지나치게 협착하고 명륜당 후면공간도 명륜당과 내삼문과의 간격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후원으로서 경사지 위에 수경으로 처리가 되어 강학공간으로서 보다는 조경공간을 통한 전이공간으로 보여짐으로서 본 향교의 강학공간이란 것이 공간으로서 보다는 건물자체로서만 인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성기의 향교나 서원건축에서 극히 일부 보이는 배치형태이지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명륜당(강당) 전후면에 충분한 공간을 할애하여 강학공간을 공간으로서 충분히 인식하도록 배려한 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동·서재의 평면상에 보이는 미진화성으로서 대부분의 재사형태가 평면이나 위치에 있어서 대칭으로 구성되는 형태와는 달리 평면에 있어서 전혀 상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간수 및 내부평면이 완전히 상이하고 동재의 경우 부엌이 딸린 일반살림집 형태이고 서재의 경우 광이 딸린 살림집의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성기의 재사가 온돌방과 대청으로 구성되고 특히 재사의 형태가 정연화되어 동재가 서재보다 그리고 재사에서의 기거 원생의 서열에서 명륜당에서 가까운 부분이 상위자에게 배려하는 위계성을 위해 구성되는 개념들이 본 향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정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재에서 보이는 문등형태의 전실개념은 주로 살림집에서나 보이는 남

1) 생단이란 牲看品을 행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물로서 여기서 牲이란 춘추제향시 제물로 쓰는 살아있는 짐승을 말하며 보통 돼지나 흑염소를 쓴다. 생간품이란 제향저널 여러 제관들이 생단위에 생을 세워놓고 품평하는 의례를 말한다.  
 2) 관세대란 제향시에 그 위에 세숫대를 놓고 사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 만든 석물이다  
 3) 서원건축에서는 이를 前齋舍後講堂형식이라 칭하는데(이정국, 박광규, 이해성,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0, 6)에서는 이러한 배치를 분석분류상 F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재사건물이 강당(명륜당) 전면부에 위치하여 강학공간이 강당(명륜당)의 전면에 형성된다. 주로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의 향교·서원건축에 많이 나타남

4) 서원에서는 이를 前講堂後齋舍형태라고 하는데(이정국 외, 상계서에서는 이러한 배치형식을 G형으로 정의하고 있음) 강당(명륜당)의 후면부에 동·서재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강학공간이 강당(명륜당) 후면부에 형성되는 배치형태인데 주로 전라도나 경기도 소재 향교(서원)에 많이 나타난다.

부지방형의 형태5)로서 중부지방의 살림집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평면형태이다. 재사의 평면에서 보이는 평면의 미진화성은 창호계획에서도 상당부분 노출되고 있는 바, 동재의 경우 좌측 온돌방 부분의 전면 창호를 제외하고 전면 온돌방 부분의 창호가 전실부분의 한쪽과 측면의 살창을 제외하고 전혀 창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거를 위한 온돌방으로 판단키 어려운 실이다. 서재의 경우 명륜당을 향한 우측면의 일부에만 창호가 형성되고 전면 및 측면 전체적으로 창호가 전무한 상태로 건축되어 일반적인 재사의 평면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평면적인 미진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명륜당의 경우 전면간수가 4간으로서 전면간수를 홀수로 구축하는 일반적인 한국건축에서의 조영규범에 특히 명륜당이나 강당의 경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5간구조로 되어있는 사례에서 벗어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은 강학공간에서 보여지는 본 향교의 건축적 특성을 성기의 향교규범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제향공간을 살펴보면 강학공간에서와 같은 특이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성전의 전면간수가 5간으로서 대개 3간 정도로 건축하는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과장된 규모계획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초기 향교에서 대성전의 간수를 3간으로 제한했던 당시의 규범6)에서도 벗어난 계획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5간규모의 대성전은 대개 후기 향교건축에서 나타나는 규모이다. 또한 전면창호가 대개의 경우 미단이문으로 설치하는데 비해 본 향교에서와 같이 들어열개로 설치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 5) 이러한 못등형태의 전실공간은 주로 제주도지방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남부지방형 평면특성으로서 이는 여름철의 뜨거운 일사에 대한 적극적 차단 효과를 위해 차양보다 전실개념을 도입한 평면형태이다. (장보용, 한국의 민가 연구, 보진제출판사, 1981, p142~152)
- 6) 이정국, 박광규, 이해성,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0.10, p33

다음으로 제향공간에서의 특이성은 석물의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즉 통상 생단은 명륜당이나 대성전 측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비해 본 향교에서는 제향공간의 정중앙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세대는 대성전 전면기단의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상례인데 비해 본 향교에서는 동무의 전면, 그것도 내삼문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두 석물 모두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제향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 5. 봉안형식 및 향례절차

#### 4-1 배향내용

교동향교의 대성전에는 五聖位(文宣王 孔子, 復聖公 顏子, 述聖公 思子, 宗聖公 曾子, 亞聖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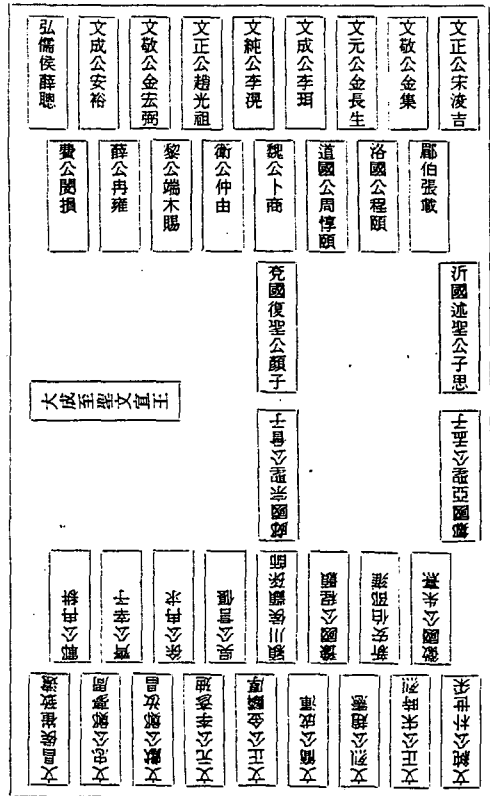


그림 4. 대성전 先聖先賢位牌 奉安位次圖 (喬棟鄉校誌)

孟子)를 봉안하고 東西從享으로 중국의 儒賢 十六位(東從享 - 費公 閔損, 薛公 再雍, 潔公 端木賜, 衛公 仲由, 魏公 卜商, 道國公 周享頤, 洛國公 程頤, 湄伯 張載, : 西從享 - 輝公 再耕, 齋公 辛苻, 徐公 再求, 吳公 言胃, 頓川侯 端孫 師, 豫國公 程顥, 新安伯 邵雍, 微國公 朱熹)를 배향하였으나 1949년에 전국유림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十六賢東西配享位 중 程頤, 朱熹를 제외한 十四位를 埋享하고, 我國十八賢을 承奉從享하고 春秋釋尊을 폐하고 공자의 단일인 陰 8월 27일에 記念釋尊을 봉행하다가 3년 후인 1952년에 孔門十哲과 宋朝四賢을 復位하는 동시에 석존도 춘추로 환원 봉행하였다.

동무에는 弘儒侯 薛聰, 文成公 安裕, 文敬公 金宏弼, 文正公 趙光祖, 文純公 李滉, 文成公 李珥, 文元公 金長生, 文敬公 金集, 文正公 宋浚吉 등 我國의 九賢을 봉안하고 배향하였다.

서무에는 文昌侯 崔致遠, 文忠公 鄭夢周, 文獻公 鄭汝昌, 文元公 李彦迪, 文正公 金麟厚, 文簡公 成揮, 文烈公 趙憲, 文正公 宋時烈, 文純公 朴世采 등 我國의 九賢을 봉안하고 배향하였다.

#### 4-2 향례절차

교동향교에서는 매월 朔望 焚香禮와 春秋仲月 上丁日에 釋尊의 의식을 봉행하였고, 국가에 有事할 때 수시로 酌獻禮를 봉행하였다.

교동향교의 釋尊順은 다음과 같다.

①贊引이 大祝과 제 執事를 인도하여 소정위치에 안내한다.

大祝과 제 執事が 四拜

大祝과 제 執事が 盥洗臺에 나아가 盥流하고 대성전 계단 상에 정열

②謁者が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을 인도하여 소정위치에 안내

謁者が 初獻官에게 행사를 청함

獻官과 참여자 일동이 四拜

#### 4-2-1 尊弊禮

謁者が 初獻官을 인도하여 盥洗臺에 나아가 세수하고 孔子大聖位앞에 나아가

初獻官이 孔子大聖位 앞에 꿇어 앉아 세 번 분향하고 弊帛을 드리고 섬

다음 顏子聖位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弊帛을 드리고 섬

다음 曾子聖位 앞, 子思聖位 앞, 다음 孟子聖位 앞에 각각 나아가 분향하고 弊帛을 드리고 소정위치로 돌아감

#### 4-2-2 初獻禮

謁者が 初獻官을 인도하여 孔子大聖位에 올릴 술상 앞에 나아가

孔子大聖位앞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고 조금 물러서서 꿇어 앉음

大祝이 축문을 읽음

初獻官이 顏子聖位, 曾子聖位, 子思聖位, 孟子聖位順으로 나아가 각각 술잔을 올리고 소정위치로 돌아감

#### 4-2-3 亞獻禮

謁者が 初獻官을 인도하여 盥洗臺에 나아가 세수하고 孔子大聖位앞에 나아가

孔子大聖位앞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고, 다음 四聖位순으로 각각 술잔을 올리고 소정위치로 돌아감

#### 4-2-4 終獻禮

謁者が 初獻官을 인도하여 盥洗臺에 나아가 세수하고 孔子大聖位앞에 나아가

孔子大聖位앞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고, 다음 四聖位순으로 각각 술잔을 올리고 소정위치로 돌아감

#### 4-2-5 分獻禮

贊引이 東從享分獻官, 西從享分獻官을 인도하여 盥洗臺에 나아가 세수하고 東從享分獻官은 東從享 十七位에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西從享分獻官은 西從享 十七位에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소정위치로 돌아감

#### 4-2-6 飲福禮

謁者が 初獻官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곳에 나아가 석존에 드린 술과 脯를 받아 음복함

헌관이 일제히 四拜

大祝이 撤床함

헌관과 참여자 일동이 四拜

4-2-7 望瘞禮

謁者が 初獻官을 인도하여 焚祝하는 곳에 나아감

人祝이 焚祝함

謁者が 初獻官에게 禮畢을 고함

謁者和 贊引이 獻官을 인도하여 퇴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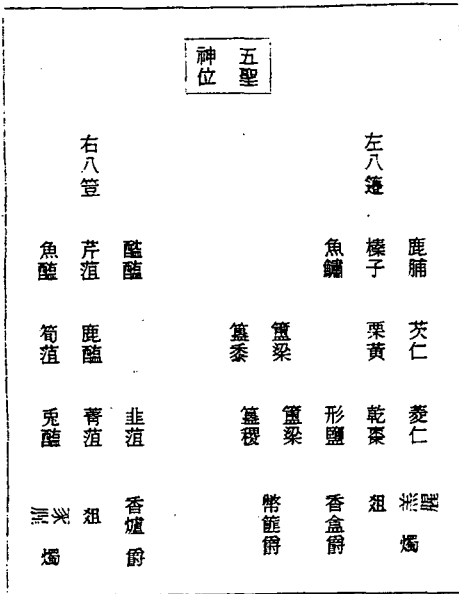


그림 5. 陳設圖(喬棟鄉校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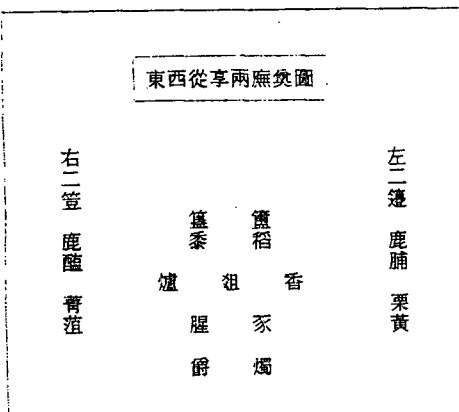


그림 6. 東西從享兩廡尊圖(喬棟鄉校誌)

6. 결론

이상 교동향교의 건축적 특성과 봉안 형식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강학공간의 배치구성에 있어서 명륜당과 동·서재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명륜당 전면 및 후면의 공간이 협착하여 강학공간이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며 강학건축물의 형식으로서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동·서재의 평면이 상이하며 모두 盛期の 평면형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강학 및 기숙건축물로서의 미진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명륜당의 간수가 4칸으로서 일반적인 간수규범에 유리된 형태로 건축되어 있다.

셋째, 제향공간에 있어서는 초기향교에서 보기 힘든 5칸규모의 대성전으로 상당히 과장된 평면구성을 볼 수 있으며 관세대 및 생단의 설치장소가 성기의 일반적인 장소성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배향내용은 일반적인 향교의 배향개념 준하여 대성전에 중국의 五聖位 및 儒賢 十六位를 배향하고 동·서무에 각각 我國의 九賢을 봉안하고 배향하였다. 향례절차도 매월朔望 焚香禮와 春秋仲月 上丁日에 釋尊의 의식을 봉행하였고, 국가에 有事할 때 수시로 酌獻禮를 봉행하였다. 이러한 봉안형식은 초기에 설정되어 시대에 따른 큰 변화없이 각 지방향교의 여건이나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약간씩의 변화를 주어왔던 것으로 사료된다.

교동향교를 통한 시원적인 향교건축의 형태를 분석한 바 소수서원에서와 같은 예외적인 배치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문묘형식들이 엄격하게 규범화되어 한국으로 전이되어 창설되면서도 이러한 규범을 따르려고 했던 의도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여러 부분에서의 미진화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원적 형태의 향교의 모습에서 성기의 형태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계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향교건축의 유형학적인 배치나 구조등의 연구가 보다 역사적 맥락을 통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이정국·박광규·이해성,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0.10
2. 김지민,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6. 6
3. 이왕기, 한국 유교건축의 敬정의 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6. 10
4. 김지민, 전남지방의 서원, 사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4
5. 김은중, 조선시대 사학건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2. 2
6. 이정수, 조선시대 향교,서원건축 구성형식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 1
7. 조영화, 경북지방 향교건축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7
8. 전남의 향교(향토문화총서 제 28집), 전라남도, 1987
9. 김지민, 서원 및 향교건축의 공간과 장소적 특성, 건축과 환경 7월호, 1986
10. 김지민, 조선시대 향교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4.
11. 김용덕, 조선후기 향교연구, 한국사학 5집, 1983
12. 임한영 외, 전국향교현황조사, 성대논문집, 17집, 1972
13.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출판사, 1981
14. 喬棟鄉校誌編纂委員會, 喬棟鄉校誌, 1987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Ritual Form of Kyodong-Hyangkyo

Kim. Eun Joong  
( Instructor, Konyang University)

### ABSTRACT

There are several treatises abou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Hyangkyo. But those treatises usually treat with the types of site plans or structural characteristics without the historic background. So there needs the approaching methods with the historic background to study about the architecture of Hyangkyo. This study aims at the sample research about the architecture of Hyangkyo in beginnig period.

Kyodong hyangkyo is the first building in hyangkyo. There are som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this building comparing with the Hyangkyo in ripening period. Such characteristics apper in the site plan of educational spaces and in the floor plans of Myongryundang, Dongjae, Seojae. And there appear some characteristecs in ritual spaces such as the architectural structure of Daesungjun, and the position of stone establishment (Kwansedae, Saengdan)

The ritual form of Kyodong hyangkyo has no special characteristics compering with the Hyangkyo in ripening period. These rictual form has kept the general rule of ritura form through the history.